



63Page



64Page



65Page

솔로몬

-여덟 번째 이야기-

나 레 이 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산당(제단이 있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답니다. 어느날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기브온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큰 산당이 있었어요. 솔로몬 왕은 그 제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어느 날, 솔로몬 왕의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 오셨어요.

하 나 님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솔 로 몬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나 레 이 셴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대답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하 나 님 네가 너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자가 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나 레 이 셴 솔로몬은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주었어요.

그때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안고 솔로몬 왕 앞에 나아왔어요.

여 인 1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저 여자의 아기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나 레 이 셴 그 여자는 울면서 다시 말했어요.

여 인 1 그러자 제가 잠들었을 때 죽은 자기 아이와 제 아기를 바꾸었어요. 제발, 제 아기를 찾게 해 주십시오!

나 레 이 셴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여자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 인 2 그게 아닙니다. 저 여자가 한 말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아기를 찢아 죽이고는 제 아기가 살아있는 것이 샘이 나서 아기를 빼앗아 가려고 꾸민 거짓말입니다.

나 레 이 셴 두 여자는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다투었어요.

나 레 이 셴 솔로몬 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운 판결을 내렸어요.

솔 로 몬 여봐라! 아주 큰 칼을 가지고 오너라!

하 예, 여기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 레 이 셴 신하는 솔로몬 왕에게 칼을 즉시 가져다 주었어요.
솔로몬은 신하에게 말했어요.

솔 로 문 저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아기 반쪽은 이 여자에게,
나머지 아기 반쪽은 저 여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나 레 이 셴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그러자 한 여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여 인 1 제발! 아기를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나 레 이 셴 그러나 다른 한 여자는 눈을 흘기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 인 2 그래요. 칼로 나누세요! 그래서 제 아기도 아니고 저 여자의 아기도
되지 않게 해 주세요.



66Page

나 레 이 셴 잠시 후,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마지막 판결을 내렸어요.

솔 로 문 아기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는 저 아기를 사랑하는 참 어머니이니라!

나 레 이 셴 그래서 살아있는 아기는 진짜 엄마 품에 다시 안기게 되었어요.
모두가 솔로몬 왕의 지혜에 놀랐어요.

이렇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을 지혜롭게 할 수가
있었어요.

나 레 이 셴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려서 나라가 평화로웠어요.
그 소문이 이웃 나라에까지 퍼져 모두가 솔로몬 왕의 지혜를
부러워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스바 여왕도 많은 금과 은, 여러 가지 보석들과 향기로운
향품들을 잔뜩 낙타에 싣고,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여행을 떠났어요. 지혜를 찾아 이스라엘 까지 먼 길을 떠나는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물었어요.

여 왕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나 레 이 셴 솔로몬은 주저 없이 대답했어요.

솔 로 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나 레 이 셴 스바 여왕은 그 후에도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솔로몬은 척척
대답을 했어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며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선물을
솔로몬 왕에게 모두 주었어요.



67Page

나 레 이 셴 솔로몬 왕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다짐했어요.
그는 레바논에서 나는 좋은 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백성들에게는 돌과 나무를 다듬게 하였지요.

나 레 이 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속에서 7년 동안
정성스럽게 건축되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자 솔로몬 왕은 너무나 기뻐요.
솔로몬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솔 로 몬 오! 하나님!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레 이 셴 그리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솔 로 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 이제 저와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저희가 죄를
지었다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 계신 곳 하늘에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세요!

나 레 이 셴 솔로몬 왕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속에서 7년 동안
정성스럽게 건축되었어요.